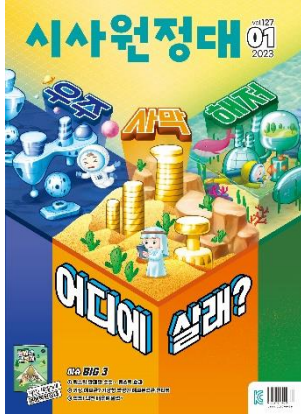


# 시사원정대 NIE 2023-1월호



##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 교재 들여다보기

###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 2)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3)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필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 4)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5) 문해력원정대(별책부록)

글을 읽고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인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을 콕콕 짚어주는 특별부록으로 2023년 1월과 8월 발행됩니다. 문해력을 기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과 독서법을 소개하고 학년별로 읽기 좋은 추천도서도 소개합니다.

# 1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1월호 1주 (90분)		
학습 목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계획도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사례를 생각해 본다.		
활동 초점	- 오리온 우주선의 귀환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 계획도시란 무엇이며 세계적으로 어떤 계획도시가 있는지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 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10
펼치기	-48 시사네컷1 아르테미스 첫 주자, 오리온 지구 귀환 완료!	- 오리온 귀환이 중요한 이유 -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45
	- 14~25 커버스토리 - 네움시티, 정체가 궁금해 - 계획으로 탄생한 도시들 - 미래에는 ?에서 산다	- 네움시티 - 계획도시 사례 - 미래 계획도시	25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자신이 계획도시를 만든다면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만들고 싶은지 상상해 보자.	10

[2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1월호 1주		
학습 목표	계획도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사례를 생각해 본다.		
활동 초점	- 계획도시란 무엇이며 세계적으로 어떤 계획도시가 있는지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 퀴즈로 어휘 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14~25 커버스토리 - 네움시티, 정체가 궁금해 - 계획으로 탄생한 도시들 - 미래에는 ?에서 산다	- 네움시티 - 계획도시 사례 - 미래 계획도시	15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 자신이 계획도시를 만든다면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만들고 싶은지 상상해 보자.	2

## 시사네컷1

### 아르테미스 첫 주자, 오리온 지구 귀환 완료!

<어휘 UP>

주자: 경주하는 사람.

귀환: 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옴.

궤도: 행성 등이 움직이는 경로.

상공: 어떤 지역의 공중.

<발문>

1.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알고 싶은 달의 비밀은 무엇인지 발표해 보자.
2. 달 탐사선을 타고 달에 착륙한 상황을 상상해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미(美) 우주선 '오리온' 무사히 지구로... "다음 단계는 유인우주선"**

달로 떠났던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선 '오리온'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다.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미국의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1단계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12일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11일 오전 9시 40분(현지 시간) 오리온이 멕시코 바하 칼리포르니아 서쪽 해안 태평양에 착수(着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미국 플로리다 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SLS)'에 실려 발사된 이후 25일 만이다.

유인 우주왕복선 오리온 발사는 아르테미스 미션의 일환이다. 비행체의 성능을 시험하는 1단계 무인 미션, 통신과 운항 시스템을 시험하는 2단계 유인 미션에 이어 2025년까지 인류를 달에 보내는 총 3단계의 미션이다.

이번 발사는 1단계에 해당한다. 오리온에 사람 대신 마네킹을 실어 우주 비행사들이 임무 수행과정에서 착용할 우주복의 성능을 파악하고,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속도와 진동, 방사능 노출량 등을 조사했다. 달 궤도 비행 중 달 표면 약 130km 까지 근접하는데도 성공했다.

오리온은 낙하산을 펼쳐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하강하는 '스플래시 다운' 방식으로 태평양에 안착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착륙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재진입 방식도 도입했다. 물수제비처럼 대기를 통통 튀어 오르도록 했다. 지구 표면에서 약 122km 떨어진 대기에서 충돌한 후 61km 지점까지 추락하고 다시 91km까지 튀어 올랐다가 하강하는 식으로 대기권을 뚫었다.

오리온은 이번 착륙에서 바다와 바람이 거세지면서 원래 목표 지점에서 남쪽으로 482km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으나 에너지 제동 기능과 방열 성능을 입증했다. 재진입이 성공하려면 지구 대기권에 도달했을 때 시속 4만km의 속도를 시속 32km까지 감속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태양표면 온도의 절반에 이르는 2800도의 온도를 견뎌내야 한다.

오리온은 케네디우주센터로 옮겨질 예정이다. 해치를 열어 내부에 탑재된 마네킹 등을 회수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얼마나 열과 압력을 잘 견뎌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한 방열판 검사도 진행된다.

NASA는 이번 1단계 계획에서 도출한 자료를 토대로 2, 3단계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빌 넬슨 NASA 국장은 "오늘은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심우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2-12-12]

## 커버스토리

### 네옴시티, 정체가 궁금해

<어휘 UP>

첨단: 학문, 기술, 유행 등의 맨 앞.

떠들썩하다: 여러 사람이 큰 소리로 시끄럽게 마구 떠들.

인공: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가공하거나 만들어내는 일.

랜드마크: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표지.

<발문>

1. 네옴시티를 구성하는 첨단도시 가운데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을 정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2. 네옴시티가 완성되면 주변 나라나 도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 [네옴시티의 경제학①] 석유왕국의 '脫석유 꿈' 이를 미래도시

네옴(NEOM)시티는 석유왕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꿈꾸는 미래다. 사우디 정부가 석유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추진 중인 '비전 2030' 전략의 하나로, 사우디 북서부에 서울의 44배 넓이인 2만6500km<sup>2</sup> 규모의 초대형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네옴이라는 이름은 새로움을 뜻하는 그리스 단어 '네오(NEO)'와 미래라는 의미인 아랍어 '무스타크발(Mustaqbal)'에서 따왔다. 이름 속 M자는 사우디 왕위 계승 서열 1위이자 네옴시티 사업을 주도하는 무함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뜻하기도 한다.

네옴시티는 기존 신도시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태양열과 풍력 등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로 지어진다. 걸어서 5분 거리에 모든 편의시설이 배치되며, 먼 거리 이동을 위한 지하도로와 고속 철도망이 촘촘히 깔린다.

네옴시티 안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직선형 도시 '더라인', 바다 위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친환경 관광단지 '트로제나' 등 빅3가 꼽힌다.

이 중 지난해 1월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발표한 사업인 더라인은 사막과 산악 지대를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170km 길이의 주거지역을 짓는 사업이다. 높이 500m, 너비 200m의 거울 벽이 도시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계획대로 완성되면 900만명이 살 수 있다.

더라인 내부에는 인공 숲과 강이 조성되며, 거주자는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학교와 직장, 주택 등을 잇는 에어택시와 고속철도도 들어서며 기온도 1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된다.

사우디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더라인 건설을 위한 공사 발주를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의 수주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을 찾은 빈 살만 왕세자가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과 만나 추가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더라인 계획을 공개하면서 "산업혁명 이후 도시는 사람보다 기계·자동차·공장을 우선했다"며 "이 때문에 도시인은 통근을 위해 평생을 보내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해수면 상승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염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와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통적인 도시 개념을 완전히 획기적인 미래 도시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옴시티가 바로 빈 살만 왕세자의 꿈을 실현할 스마트 도시인 것이다.

## 커버스토리

### 계획으로 탄생한 도시들

<어휘 UP>

체계적: 일정 원리에 따라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돼 전체를 이룸.

설계: 건축 등에서 목적에 따라 계획을 세워 도면에 기록하는 일.

기반: 기초가 되는 바탕.

배수: 안에 있는 물을 다른 곳으로 내보냄.

특색: 보통의 것과 다른 점.

<발문>

1.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2. 내가 계획도시를 만든다면 자연, 관광 등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자.

### <교사 참고자료 1>

#### [도시, 미래로 미래로]<2>미국의 샌안토니오

샌안토니오의 발전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샌안토니오 강의 역사와 함께한다. 처음에는 단지 반복되는 홍수를 이겨내기 위해 강을 정비하기 시작했지만 반세기 넘게 사업이 지속되면서 강이 도시를 더욱 풍성하고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샌안토니오는 강이 도시생활의 중심이 되고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 물길을 따라 시민의 삶과 공간을 엮어

텍사스 주의 샌안토니오는 미국에서 여덟 번째로 큰, 인구 182만여 명의 도시다. 물리적으로는 넓지만, 다운타운의 분위기는 '작은 도시'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보행자의 도시다.

도시를 감싸는 순환도로나 그 순환도로를 관통해 도심으로 모아지는 간선도로들의 체계, 시 외곽의 미국 최대 규모 육해군 기지, 의료 생물 기술 관련 학술 컨벤션센터 등의 존재는 이 도시가 미국 서남부를 대표하는 큰 도시임을 말해 준다. 하지만 도시를 구획 짓는 좁은 격자 패턴이나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유적들, 멕시코 문화의 흔적들은 강하고 독립적인 개성을 풍기는 특유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내며 이 도시에 걸어도닐 만한, 따뜻하고 정겨운 기운을 불어넣는다.

'큰 도시 속의 작은 도시 분위기'는 샌안토니오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도시개발의 방향성이다.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단지 물리적 크기의 조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벤트와 경험을 어떻게 손에 잡히게 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샌안토니오 시가 조성한 리버워크(River Walk)는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삶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직조해 낸 기획이다. 다운타운을 고리 모양으로 감싸며 도는 강변길인 리버워크는 도심 도로 한 층 아래 강물을 흐르게 하고, 강물 바로 옆으로 산책로를 만들었다. 이 산책로에는 카페와 레스토랑, 호텔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아래층 산책로에서 자라난 나무는 무성하게 뻗어나가 리버워크 위층의 도시공간과 아래층 물가 산책로를 하나로 엮어낸다.

운하의 폭과 깊이는 결코 넉넉하지 않다. 너무 넓어 황량하기보다는, 살짝 부딪힐 것같이 인간적이고 아늑한 공간을 지향했다. 강변 레스토랑에 앉은 사람은 위층 다리를 지나는 행인과 택시들의 움직임 읽을 수 있고, 위층에서도 강변의 움직임에 언제든지 동화될 수 있다. 위아래 레벨의 관계, 강변산책로와 직접 닿은 상점 공간의 설정은 바로 강과 도시를 분명한 경계 없이 서로 넘나들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이다.

○ 상업문화공간과 강의 결합

리버워크의 시작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한 댐과 수로 건설 등 제반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을 도시의 미적 요소로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보행자다리, 산책로 등이 설치됐다. 1960년대부터는 전체 강 개발의 장기 구상 아래, 10년 단위의 세부 계획을 세워 자본을 확보하고, 강변 환경의 재편성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건축가 R H H 허그먼은 도심의 수많은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강과 근접거리에 집중시키는 계획을 제안했고, 시는 강 주변 상업시설의 디자인을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자문위원회(Riverwalk Advisory Commission)를 만들어 강을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발전시키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지금의 리버워크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을 가능케 한 데에는 여러 행정조직이 있었지만, 그중 1937년 출범한 SARA(San Antonio River Authority)가 대표적이다. 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개발 방식을 결정하는 반(半)공공기관인 SARA는 강변 전체를 특성에 따라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샌안토니오 시의 리버워크에서 주목할 것은 강이 단지 자연환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상업 문화공간과 연계되어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도시에서 하천을 재생하며 간과한 부분일 것이다.

도시는 이제 표현과 소비의 장소다. 도시의 가장 생동감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문화가 만들어지는 순간일 것이다. 청계천 복원의 경우, 자연을 재생하기는 했지만 그 자연이 어떻게 도시의 소비생활 패턴과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방법은 설정하지 못했다. 청계천과 리버워크의 가장 큰 차이는 청계천이 기존 도로와 떨어져 있어서 도시생활과 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리버워크는 산책로와 곧바로 인접하여 문화 상업공간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샌안토니오는 향유하고 소비하는 도시문화의 대상으로서 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이 도시가 가진 경쟁력의 가장 큰 자산이다.(하락)

## 커버스토리

### 미래에는 '?'에서 산다

<어휘 UP>

수면: 물의 겉면.

나선형: 소라의 껍데기처럼 빙빙 비틀려 돌아간 모양.

온실: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해 식물 재배를 자유롭게 하는 구조물.

강인한: 역세고 질김.

압력: 두 물체가 서로 수직으로 누르는 면적에서의 힘.

<발문>

1. 기사에 소개된 환경 외에 미래에 어느 곳에서 도시를 만들어 생활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자.
2. 미래의 계획도시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 <교사 참고자료>

#### 미래 과학자들 예측한 100년 뒤의 삶

100년 뒤 미래에는 먼 곳의 맛집을 직접 찾아가 요리를 주문해 먹거나 해외여행을 갈 때 큰 가방에 여행용품을 꼼꼼히 챙겨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차원(3D)프린터가 '미술랭의 별' 세 개를 탄 유명 레스토랑의 고급 요리를 몇 분 내 똑딱 찍어내고 수십 m 길이의 거대한 드론은 집을 통째로 해외 휴양지로 옮겨준다.

BBC 등 주요 외신들은 15일 '더 스마트싱스 퓨처 리빙 리포트'를 인용해 미래 과학자들이 예상한 100년 뒤인 2116년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조명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저명한 미래 과학자인 매기 애더린포콕 박사와 아서 마모마니 웨스트민스터대 교수, 도시설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들었다. 2014년 사물인터넷(IoT) 회사 스마트싱스를 인수한 뒤 주택의 자동화, 정보화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삼성전자

가 연구를 지원했다.

보고서에 그려진 100년 뒤 도시 모습은 아직은 공상과학(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지구촌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구(球) 모양의 수중 도시들이 세워진다. 주택과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진 이 도시는 스스로 산소를 생성할 뿐 아니라 수소연료가 에너지원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와 함께 지하 26층짜리 '땅속 빌딩'도 건설된다.

지구와 가까운 달이나 화성으로 '우주휴가'를 떠나는 일도 흔한 일이 된다. 가상 현실을 통한 원격회의가 일상화돼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면 된다. 3D프린터는 가구와 집기부터 맛있는 요리까지 척척 찍어낸다. 의료기술도 획기적으로 발전해 집에 있는 첨단기기로 원격 진단과 처방은 물론이고 수술도 가능해진다. 남은 수명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 수명 연장이 일부 기득권층에만 허용돼 반란이 일어나는 2013년 할리우드 영화 '엘리시움'의 한 장면이 100년 뒤에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애더린포콕 박사는 "현재 우리 삶의 모습도 1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이라며 "특히 인터넷은 소통과 학습 방법, 생활 모습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6-02-18]